

안 “철수” ... ‘양보론’이 문제인가?

■ 단일화 불협상 중단 선언 배경

“민주 언론플레이 단일화 정신 해쳐”

과도한 발언·행동·조직동원에 불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액션” 분석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방법 협상이 개시 이틀째인 14일 전면 중단된 것은 민주당 측의 언론플레이 등 단일화의 정신을 해치는 발언과 행동, 과도한 조직 동원 때문이라는 게 안 후보 측의 주장이다.

즉, 정권교체와 정치쇄신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정치적 본모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후보 양보론, 우리 실무팀에 대한 인신공격, 실무팀 성원의 협의된 내용 이외의 자의적 발언 등이 있었다”고 협상 중단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일부 조간신문은 문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 발언을 인용 “이번 주를 넘기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 대변인이 지적한 ‘인신공격’과 관련, 이 관계자는 “(단일화) 협의 시작 전 시점에 문 후보의 정무특보인 백원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측 실무팀원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실장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이 트윗에는 이 실장이 지난 4·11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당시 사용한 포스터가 첨부돼 있다. 이 관계자는 ‘자의적 발언’에 대해 “(문 후보 측)를 협상 실무팀 일원인 김기

식 의원이 합의 내용 이외에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TV토론과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상파 TV토론 외에도 가능하다면 두 후보가 일권리 충족 차원에서 복수의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캠프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안 후보 측을 자극했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는 백 전 의원의 행동에 대해 “(문제의 글을) 즉각 페이스북에서 삭제했고, 백 전 의원은 정무특보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양보론’ 보도와 관련, “캠프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발언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또 민주당의 과도한 조직 동원도 문제 삼았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정당 활동은 정상적이어야 한다. 저희에게 수많은 비정상적인 조직 동원을 통한 행동과 말들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양보론’과 관련된 얘기나”는 질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포함되는 얘기다”고 답했다. 즉, 언론에 양보론을 흘리고 이를 다시 조직을 통해 확산하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보다 는 지지를 정체·하락 과정에 빠진 안 후보 측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액션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협상 중단은 한 번은 있을 고비일 뿐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협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날 양측의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 첫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양측은 또 전날 밤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해 잠정합의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단일화 중대기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측이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과의 아권 후보단일화 불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에 따라 양측의 단일화 논의가 중대기로 놓이게 됐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왼쪽)와 캠프사무실에서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박 “신규 원전 건설 신중” ... 문·안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대선 후보 에너지 정책

최근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및 원전 정책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최근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히 접근하되 기존 원전에 대해서 신뢰를 높여 가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문 후보는 추가 건설 중단뿐 아니라 기존 원전 역시 단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박 후보는 지난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에서 “원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히 관리하되, 새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며 ‘탈(脫) 원전’을 선언했다.

그는 “고리 1호기 등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 외에는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며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키우겠다.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하고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간의 힘으로는 원자력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수력발전 포함 현재 2.7%에서) 다음 정부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6%로,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텅 빈 가을들판...난 무엇을 수확했나



⑨ 추수

볼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은 ‘이미지의 홍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평가들은 ‘스펙타클의 폭력’으로 인한 우리시대 이미지의 과도함이 종종 현기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필자는 종종 서정적인 자연의 이미지에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 오월 모내기를 막 마친 후 연두 빛 어린 모가 가지런한 무논이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지금은 농부의 손길 대신 이앙기로 줄맞춤을 하지만 비례와 균형 등의 미적 형식까지 갖춘, 여린 모의 행렬이 빚어낸 초여름의 초록빛 들녘은 경탄스럽기 그지없다. 또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의 황홀한 인상, 가을걷이를 끝낸 후의 ‘텅 빈 충만’은 한국인이려면 누구라도 느끼는 친근한 미감일 것 같다.

클로드 모네(Claud Monet : 1842~1926)의 작품 ‘햇빛을 받는 낚가리’(1891년)는 이러한 우리의 심상에도 감명을 주는 작품이다.

인상주의 화가였던 모네는 물체의 색이 빛에 따라 시시각각으



모네 작 ‘햇빛을 받는 낚가리’

로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는 고유한 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 유명한 지베르니의 들판에서 3년에 걸쳐 ‘낚가리’ 연작을 26점 그렸다. 봄, 여름부터 겨울까지 아침 낮 석양 비 눈 추위와 함께 ‘낚가리’ 연작들을 그리며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효과들을 완벽하게 추적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그리는가에 사로잡혔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오늘날 편안한 예술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엔 가장 급진적인 화풍이었다. 한 시대의 혁명적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낚가리’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목가적인 느낌을 주는 낚가리는 전원풍광의 원형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것 같다. 모네가 ‘낚가리’에서 덧없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수확’했다면 우리들은 이 가을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빛日만평

- 김종두



수박을 쪼개보지도 못한 꿀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질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 (삼일로) 02-2276-0687 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2점 (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 (석촌역) 02-419-3388 선릉점 (선릉역) 02-985-1838 3기 안원점 (구시민회관) 032-421-2288 부평점 (부평역) 032-517-5110 수원점 (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 (백산동) 031-469-0110 평택점 (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 (용인내거리)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시 (롯데화장품) 032-329-4400 남양주점 (하나 호평역) 031-829-3903 부산 서면점 (서면역)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 (부평구청) 051-256-7200 울산 울산점 (중앙대병원)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055-287-6060 전주점 (중앙대병원) 055-746-9870 대구 동원점 (동원내거리) 053-425-4440 삼척점 (삼척내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 (마리) 053-425-7575 경북 포항점 (북구) 054-244-5110 안동점 (구. 안동농고) 054-688-2248 광주 광주점 (구. 도정) 062-225-5110 광주점 (백운점) 062-651-4477 전남 순천시 (중앙시장) 061-752-8845 전북 전주점 (민복빌딩) 053-222-5728 김산점 (구. 시청) 053-446-0198 익산점 (백부시장) 053-808-5000 남원점 (시영내거리) 053-808-2325 대전 대덕점 (도청) 042-254-5110 대전점 (충청대) 042-222-3388 대전점 (한양) 041-553-3688 광주점 (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한. 캠퍼스) 043-222-1177-8 충주점 (삼영빌딩) 043-852-1414 강원 강릉점 (역전) 033-847-6588 춘천점 (철도호텔) 033-253-5110 제주 제주시점 (광화문) 064-733-433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청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